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개선 계획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2024-2029년



개정일자: 2026년 7월



2026년 7월, 개정판

본 문서는 '2024-2029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개선 계획(CHEIP)'의 중간 보완
개정판입니다. 사업 이행 3년 차를 맞아,
공중보건국과 협력기관들은 기존 계획을
보완 점검하고 현행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는 공중보건국과
협력기관들이 계속 추진해 온 최우선
과제를 반영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제5대
중점 분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전문 및 원본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pie/planning/chip.htm>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물 오남용 예방을 CHEIP 제5대 중점 분야로 추가함
- 선천성 매독과 관련된 측정 가능한 목표 추가 (2대 중점 분야 참조)
- 목표, 추진 전략, 세부 활동의 조정 (목표 달성 기한 및 세부 활동 수정 포함)
- 최종 성과 목표의 구체화
- 협력기관들의 명단 최신화

***개정 사안은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개선 계획 (CHEIP)은 무엇인가요?

본 계획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 (공중보건국)과 협력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건강형평성의 개선, 건강하고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안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국은 지역사회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최신 데이터를 검토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가장 시급한 공중보건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본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개선 계획(CHEIP)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인구 보건 현안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과 역량 결집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중점 분야



분야 1: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아 및 산모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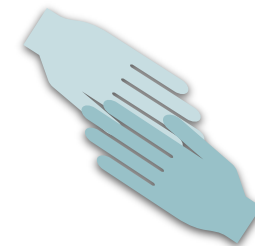
분야 2: 성매개 감염병(STI)
및 선천성 매독



분야 3: 환경 정의



분야 4: 폭력 예방



분야 5: 약물 오남용 예방

형평성 기반 사업



건강형평성이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를 통해 최상의 건강과 안녕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HEIP는 사업과 운영 절차의 기획 및 개선을 이끄는 '형평성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각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은 '형평성 중점 과제'에 따라 구성됩니다.

실용적이면서 포용적인
건강형평성 데이터 접근성의 확대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변화의 지원

권리를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파트너십 구축

정의로운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역량 강화

참여 안내

CHEIP는 선정된 중점 분야의 공통된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 단체,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건강형평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CHEIP의 각 섹션에는 CHEIP가 제시하는 활동을 지원 또는 보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동 추진 과제'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국과 협력 기관들은 CHEIP를 이행해 나가면서, 핵심 보건 우선과제에 대한 집단적 사회적 영향력(Collective Impact)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계획을 확대·현행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신 소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pie/planning/chip.htm>

최종 성과 목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모든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아와 산모/임신부가 건강하고 기쁜 출산을 경험하며 영아의 첫 생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

5년 이내에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아 사망률을 낮춰 백인 영아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아 간의 영아 사망률(IMR) 격차를 50% 줄인다.

1대 중점 분야: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아 및 산모



실용적·포용적 데이터

전략 1: 2027년 8월까지, 인종·민족별로 세분화된 산모 및 영아 사망률과 관련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 대시보드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추진 전략

정책 및 시스템 변화

전략 2: 2027년 1월까지, 주산기 건강 격차의 영향을 받는 임산부 최소 4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비롯한 경제적 안정 지원 사업의 이행 성과를 평가한다.

전략 3: 2027년 6월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산모·영아 사망률(AAIMM) 둘라(Doula) 프로그램을 최소 3개 이상의 보건 의료 체계로 확대하여, 문화적으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산모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협력 관계 구축

전략 4: 2027년 6월까지, AAIMM Village Fund를 통해 흑인 임산부 및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을 최소 10개 기관에 재정을 지원한다.

조직의 준비도 및 역량 강화

전략 5: 2027년 6월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아 및 산모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행동팀(Community Action Teams)이 자체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규 전략을 최소 1건 이상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 6: 2027년 12월까지, AAIMM 운영위원회(AAIMM Steering Committee)의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3~5개년 중장기 전략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공동 과제 추진

1. 정책 및 시스템 변화를 위한 권익옹호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개인과 가구의 산모·영아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고 구조적 인종차별을 해소하며, 의료 서비스·안정적 주거 및 기타 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개선하는 정책 및 제도를 지원한다.

2. 포용적 연구 및 데이터 구축 기여

인종·민족별로 세분화된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관련 데이터 체계를 확장하고, 건강 수준 격차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소속 기관 안팎에서 이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개입 방안을 도출한다.

3. 지역사회 주도 우선과제 참여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산부 및 양육 가정을 지원 및 기념하는 전략과 사업을 개발·실행하는 전 과정에 지역사회 및 거주민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참여한다.

4.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활성화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산부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예: 그룹 산전 교실, 재정적 웰빙, 스트레스 관리, 모유 수유 지원), 상담(정신건강, 영양), 자원 연계, 의료 접근성 지원 및 기타 사회적 지원 서비스(예: 아버지 양육 참여 프로그램)를 제공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재정 및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5. 조직의 변화 촉진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영아·산모 사망률을 주요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개별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프레임을 해체하고, 인종차별을 원인으로 명시하여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흑인 주민들의 고유한 요구와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대 중점 분야: 성매개감염병 및 선천성 매독

최종 성과 목표:

미래 세대를 비롯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 주민을 성매개감염병(STI) 및 선천성 매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

1. 흑인/아프리카계 및 라틴계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MSM)의 1·2기 매독 발생률을 5년 내 20% 감축한다.
2. 선천성 매독 발생률을 5년 내 15% 감축한다.



실용적·포용적 데이터

전략 1: 2024년 12월까지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최신 사용자 친화적 HIV 및 성매개감염병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성과 상호활동 기능을 보장한다.



추진 전략

정책 및 시스템 변화

전략 2: 2027년 12월까지, 모든 임산부가 최초 산전 진료 시, 매독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및 LA 카운티 지침 준수율을 제고하고, 임신 3분기(28~32주) 및 분만 시, 추가 검사 권고 지침의 이행을 강화한다.

전략 3: 2025년 12월까지, STI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STI 선별 검사 및 검진율을 개선한다.

협력 관계 구축

전략 4: 2027년 6월까지, 정기적인 **소통**과 **공동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관계자**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성매개감염병(STI)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조직의 준비도 및 역량 강화

전략 5: 2028년 6월까지, 공중보건 조사관, 지역사회 기반 질병개입 전문가 및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공동 추진 과제

1. 매독 선별검사 확대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포함하여 매독 감염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매독 선별검사 및 치료를 강화한다.

2. 성매개감염병 인식 제고

위험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매독을 포함한 성매개감염병(STI)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확대한다. 또한 성매개감염병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낙인이 검사, 치료 및 감염 사실 공개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고취약 여성을 위한 강화된 돌봄 모델 활용

약물 사용 장애 및 주거 불안정 등 여러 동반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된 돌봄 모델을 활용하여 매독 예방 및 개입을 강화한다.

4. 문화 수용적인 돌봄 제공을 위한 조직의 준비도 강화

문화 수용적이고 적절한 언어를 통해 성매개감염병(STI)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 서비스 이용과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 장벽, 문화적 규범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응한다.

5. HIV 및 성매개감염병 확산 방지

종교 기반 기관,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관 및 사업체에서 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콘돔 배포처로 참여하며 HIV 및 성매개감염병(STI) 고위험 개인과 지역사회가 겪는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지역사회 기관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고위험이 인구집단이 예방 프로그램, 검사 및 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며, 파트너 서비스(예: 성 파트너 확인 및 통보)를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성과 목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오염 노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유해 물질 노출과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

향후 5년 이내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오염 노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며 혈중 납 농도가 $3.5 \mu\text{g/dL}$ 이상인 아동 중 최소 25%에 대해 납 노출원을 파악하고 해결한다.

3대 중점 분야: 환경 정의



추진 전략

실용적·포용적 데이터

전략 1: 2026년 12월까지, 전략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 기후 및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에 게시한다.

전략 2: 2026년 6월까지 매년, 환경정의·기후보건국(OEJCH) 프로그램 웹페이지에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정책 및 시스템 변화

전략 3: 2028년 6월까지, 석유·가스, 폭염 등을 포함한 최소 3개의 우선 정책 과제에 대해 관련 조치 및 활동을 시행한다.



협력 관계 구축

전략 4: 2028년 12월까지, 납 위험 요인 정화 및 개선 작업을 통해 LA 카운티 전역의 주택 2,000가구에서 납 페인트로 인한 납 중독 위험을 낮춘다.

전략 5: 2025년 12월까지, 그리고 향후 매년, 초기 시범 지역사회의 환경 및 기후 정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이기 위해 각 초지역(Hyper-local) 보건팀인 '지역사회 공중보건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를 제작·지원한다.

전략 6: 2026년 6월까지, LA 카운티 내 환경 정의 및 기후 보건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 정의 및 기후 보건 관련 심포지엄을 지원하며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조직의 준비도 및 역량 강화

전략 7: 2027년 1월까지, 오염 노출과 기후 변화 영향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환경적 노출에 따른 건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함께 수립한 OEJCH 전략 계획을 실행한다.

공동 추진 과제

1. 데이터 구축 및 모니터링 기여

LA 카운티 지역사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조치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공유한다.

2. 정책 수립·이행 및 집행에 적극적 참여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비영리 단체,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환경 정의 및 기후 보건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모든 수준의 정책 사업에서 환경 정의 과제 대상 지역사회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다룬다. 복합적인 환경 오염 노출 등 기후위기 최전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옹호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오염물질 노출을 방지·감소시킴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을 옹호한다.

3. 지역사회 주도 우선과제 및 사업 참여

환경 정의 및 기후 보건에 관한 전략 수립, 우선순위 결정, 사업 실행 및 의사결정 전 과정에 지역사회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주도권과 역량을 강화한다.

4.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환경 오염 피해가 집중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중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 노출을 유발하는 누적 영향(Cumulative impacts)과 토지 이용 및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알리고 교육한다.

4대 중점 과제: 폭력 예방 대책

최종 성과 목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모든 가정과 지역사회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평화로운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번영하도록 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

1.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성인 여성 및 성별 다양성 개인의 수를 5년 내 10% 감축한다.
2.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배우자·연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을 보고한 성인 여성 및 성별 다양성 개인의 수를 5년 내 10% 감축한다.



추진 전략

실용적·포용적 데이터

전략 1: 2025년 6월까지, 폭력예방국(OVP) 전략 계획 목표 및 세부 과제의 이행 경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 통합 오픈 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정책 및 시스템 변화

전략 2: 2027년 **6월까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예방 프로그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운티 내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LA 카운티** 성폭력 위원회'를 신설한다.



협력 관계 구축

전략 3: 2027년 7월까지, 기관 간 **공조 및** 협업 강화, **교육 및 기술 지원 제공,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의 젠더 기반 폭력(GBV)** 예방 모델 및 프로그램 실행 재정 지원을 통해 일생 전반에 걸친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사업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략 4: 2027년 6월까지 1) **폭력의 피해가 집중되는** 9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2) 동료 폭력 중재 교육 및 카운티 서비스 연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거리 아웃리치, 지역사회 폭력 중재(CVI), 병원 기반 폭력 중재(HVIP), '평화를 위한 지역사회 행동' 네트워크를 포함한 '트라우마 예방 이니셔티브(TPI)'의 지역 기반·지역사회 주도형 공공안전 사업을 확대한다.

전략 5: 2025년 6월까지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교육 및 인식 개선, 정책 변화, 피어(동료) 기반 접근법을 통해 **총기**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이행한다.

조직 준비도 및 수용 역량

전략 6: 2026년 6월까지, 치유와 안녕(Wellbeing)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고유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카운티 정부 부서 및 지역사회 파트너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기반 시스템과 실무 관행의 변화를 실행한다.

전략 7: 2028년 6월까지, 폭력의 현상과 공중보건 이슈로서의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합 소통(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 8: 2026년 6월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색인종 지역사회, 제대군인, 총기 소유자 등 자살 위험이 높게 나타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 및 자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실행한다.

공동 과제 추진

1. 포용적 연구 및 데이터 구축 기여

- 총기 폭력, 자살, 혐오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데이터 공백을 메우고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공유한다.
- 폭력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형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폭력의 상황적 맥락과 동료(피어) 접근법·스토리텔링 등 치유방법 및 지역사회 중심 실천방안의 효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적 데이터 수집 체계 및 활동을 지원한다.

2. 정책 및 시스템 변화를 위한 권익옹호

- 트라우마 기반 접근법과 치유 실천을 촉진하고, 인종차별 및 편견 요소를 줄이는 정책과 제도를 지지하고 이행한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이러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지원한다.
- 지역사회 시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재무 대행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계약 요건 간소화, 카운티 보험 요건 재검토 등을 통해 시민 단체가 보조금 및 예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제도를 지지하고 시행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다.

공동 과제 추진

3. 지역사회 주도 사업 및 우선 과제 참여·지원

-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리더십을 육성하며 문화예술, 치유,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진흥하는 통합적·문화 맞춤형 청소년 센터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및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 및 트라우마 인지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 지역의 리더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폭력 예방 연합 및 평화를 위한 지역사회 행동 네트워크에서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 및 파트너들과 소통한다. 또한 지역 예방 계획의 일환으로 폭력의 근본 원인, 공중보건적 접근법, 트라우마와 치유, 인종차별, 역사적 압제에 대한 공통의 지식을 형성한다.
- 각 지역사회의 필요와 자원에 맞춘 통합적·거점 기반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해, 트라우마 예방 이니셔티브(TPI) 대상 지역 등 폭력 피해 지역사회의 건강, 치유, 안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연계·조정한다. 아울러 카운티 전역에 총기 안전 잠금 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추가 자원과 파트너십을 발굴한다.

4. 조직 체질 개선 및 변화 이니셔티브 투자

- 전 직급 구성원을 위한 교육,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단체 교육을 포함하여 트라우마 기반 시스템 변화에 투자한다. 또한 직원 지원, 자원 제공, 대리 트라우마(Vicarious Trauma) 및 공감 피로(Compassion Fatigue) 해결을 뒷받침하도록 조직의 실무 관행과 정책을 정비한다.
-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신선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장려하며, 최신의 사회적 상황과 정치·물리적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원과 유연한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투자한다.
- 폭력 발생률이 높은 지역사회의 트라우마 센터(외상 센터)에서 운영되는 야간 공원 개방(Parks After Dark), 여름밤 등불(Summer Night Lights), 위기 대응, 거리 아웃리치, 병원 기반 폭력 중재 프로그램(HVIP) 등 주요 사업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전담 지속성 예산을 지원한다.
- 폭력이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통합 소통(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 투자하고, 폭력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통 메시지와 혁신적 방안을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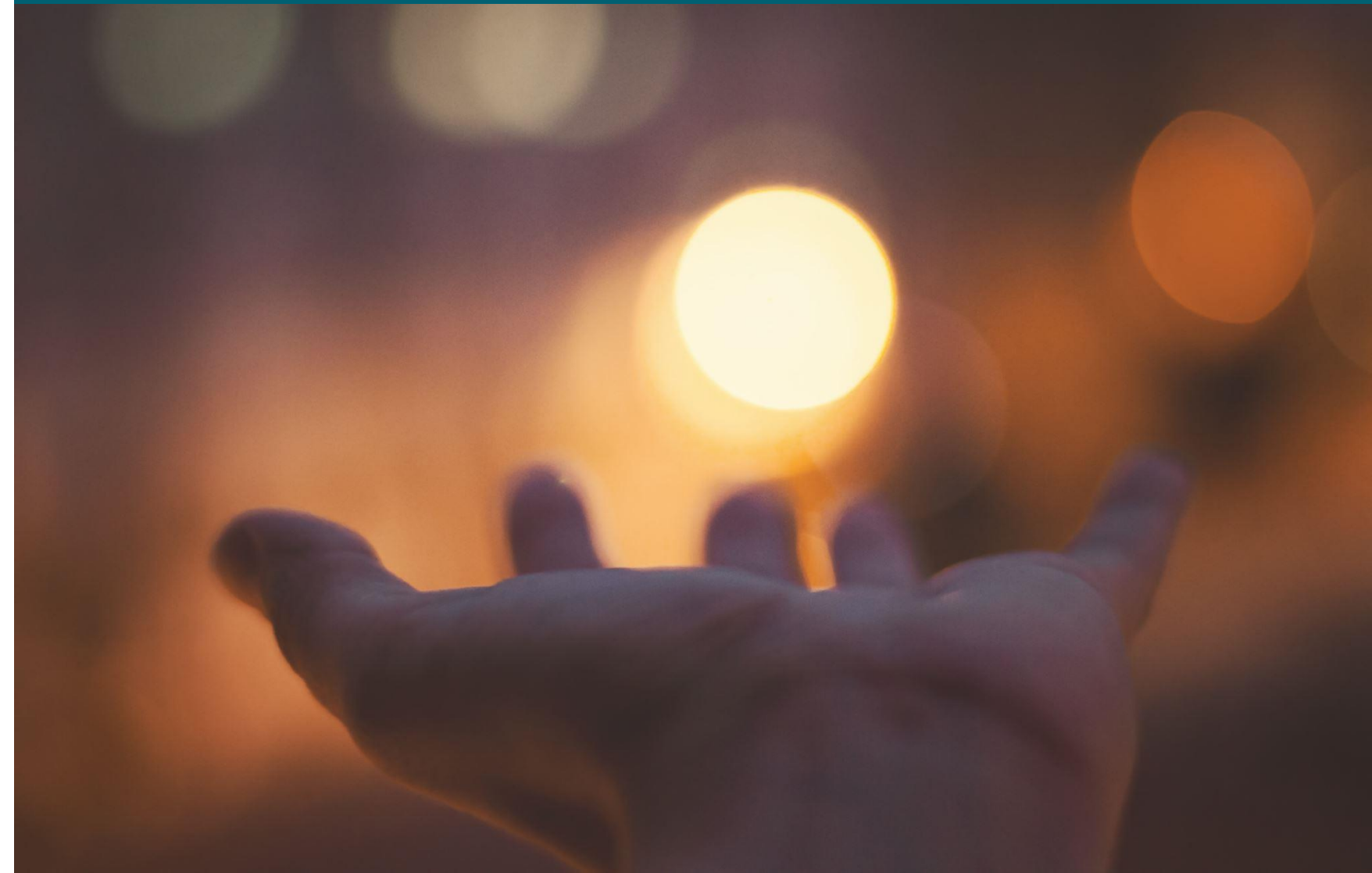
최종 성과 목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모든 주민과 지역사회가 약물 오남용 사망 위험 없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

1. 흑인/아프리카계 주민의 약물 오남용 사망률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체 평균 간의 격차를 3년 내 20% 감축한다.
2. 고빈곤 지역의 약물 오남용 사망률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체 평균 간의 격차를 3년 내 10% 감축한다.

5대 중점 과제: 약물 오남용 예방



실용적·포용적 데이터

전략 1: 2026년 12월까지 그리고 향후 매년, 약물남용예방통제국(SAPC)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 감시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하고 최신 데이터 보고서를 발간한다.

정책 및 제도 개선

전략 2: 2028년 6월까지, 우선 지원 대상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물질사용(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구 데이터상으로 자격을 갖춘 임상 전문가를 1명 이상 보유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를 최소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협력 관계 구축

전략 3: 2026년 7월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공중보건국(DPH)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위해성 감소 주사기 제공 프로그램 수를 늘리고, 사업 확장을 위해 계약 내용을 재검토한다.

추진 전략

조직 준비도 및 수용 역량

전략 4: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 사이에, 위탁 예방·위해성 감소·치료·회복 서비스 기관으로 구성된 SAPC 네트워크 전반을 대상으로 최신 위해성 감소, 나록손 응급 처치 및 중독 의학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공동 추진 과제

1. 지역사회 주도형 나록손 접근성, 지역사회 기반 약물 성분 확인 및 오남용 예방·대응 교육 확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 종교 기관, 아웃리치 프로그램,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나록손 보급 및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지역사회 기반 단체는 캘리포니아 나록손 보급 프로그램(California Naloxone Distribution Program)을 활용하여 배포용 나록손을 확보해야 한다. 약물 검사지(Test strips)도 지원되며, 지역주민은 UCLA 약물 성분 분석 프로그램(<http://www.drugcheckingla.com>)과 협력하여 정량적 약물 성분 분석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문화적 맞춤형 예방 및 낙인 해소 캠페인 공동 기획

물질사용 예방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서비스 계획 구역(SPA) 기반 예방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약물 오남용 피해자의 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낙인성 용어 사용 여부를 문헌을 통해 점검한다. 'Rewriting LA County's Story' 캠페인 웹사이트(<http://bylaforla.org>)에 게시된 툴킷을 활용하여 약물 사용에 대한 반(反)낙인 대응 방안을 활용하고 홍보한다.

3. 지역사회 내 물질사용 보편적 선별 검사 실시

중독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발굴하기 위해 문화적 맞춤형 선별 검사 도구를 활용한다. 공중보건국 물질사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맞춤 웹사이트

www.Recover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물남용 서비스 헬프라인(SASH)을 이용하거나 서비스 및 병상 확인 툴 <http://sudhelpla.org>을 방문하여 대상자가 물질사용 및 회복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물질사용 서비스에는 외래 및 심화 외래 치료, 입원/거주형 치료, 금단 증상 관리, 오피오이드(아편계) 치료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공동 추진 과제

3. 치료 서비스 연계 및 재개입 서비스 확대

지역 보건 의료의 핵심 요소로서 약물사용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는 해당 기관의 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현장 상담, 약물 치료,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약물사용 서비스 최선 실천방안(Best Practices)에 관한 공중보건국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춘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LA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약물사용 서비스 접근 도구를 통해 텔레헬스(원격 의료)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적극 활용한다.

4. 공동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 약물 오남용 데이터 공유 동참

공중보건 데이터 보고서 및 개요(Data Reports and Briefs) 페이지에 게시된 데이터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용 약물 오남용 회복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지역 오남용 예방 연합에 참여한다.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지역사회 욕구 조사 및 기타 특정 시점 실태조사에 참여한다.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중보건국과 협력
기관들의 공동의 의지와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본 계획의 성과 창출은 각 기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본 계획이 건강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활용하는
통합 실천 지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국과의 협력 참여 방법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publichealth.lacounty.gov/pie/planning/chip.htm>

